

# 가금류 이동제한 해제 · 입식 허용

### 도내 모든 방역대 해제... 전북도, 도 실정에 맞는 재발방지 위한 AI 개선대책 추진 계획

도내 가금류 이동제한 해제 및 입식이 전면 허용됐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2일 익산시에서 마지막 발생한 고병원성 AI가 발생 후 30일 경과와 방역대 내 검사 결과 이상이 없어 지난 13일자로 도내 모든 방역대가 해제됐다.

도내 모든 방역대 해제에 따라 그동안 이동이 제한됐던 닭, 오리 등 가금류에 대한 이동제한 해제 및 입식이 허용된다.

그러나 발생능가 및 철새도래지 주변으로 바이러스의 잔존 가능성과 이달 말까지 AI 특별방역 기간인 만큼 농가에서는 소독 및 출입통제 등 자율방역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AI 발생에 따른 확산방지 및 조기종식을 위해 전북도는 닭, 오리 등 가금류 180호 528만4,000수에 대해 신속한 살처분 실시로 확산방지 및 조기종식에 총력을 기울였다.

또한 연인원 6,866명의 인력과 560대의 장비를 투입해 신속한 살처분을 실시했으며 살처분 결과 173개소의 가축매몰지가 조성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살처분을 위해 시군별 주요 거점에 차량 및 운전자 소독을 위한 거점소독시설과 이동통제초소 등 총 66개소를 설치 운영했다.

## 전북 6차산업 우수제품 판촉전

전북도와 전북농협은 지난 13일과 14일 농협하나로마트 전주점에서 '전라북도 6차산업 우수제품 특별판매전'을 개최했다.

이번 '특별판매전'에는 농협하나로마트 전주점에 입점하고 있는 6차산업 경영체와 입점 준비중인 신규경영체 등 31개업체 103개 품목의 제품을 오는 27부터 6월 25일까지 매 주말 5개업체씩 로테이션으로 다채로운 특판전이 진행될 예정이며 3만원이상 구매고객에게 사은품 증정행사도 진행된다.

전북도와 전북농협은 판촉전을 통해 도내 6차산업 우수제품이 소비자에게 인지도를 높이고 매출을 이어질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대형 유통업체에 입점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계획이다. /인재용 기자



환담하는 전병헌-정세균 정세균 국회의장이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전병헌 신임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차단방역과 관련해 방역대 운영 및 철새도래지 소독, 소규모 농가 방역 조치, 축산관련 시설의 소독을 강화했다.

특히, 김일재 행정부지사의 진두지휘 하에 시도별 발생상황 및 차단방역 우수사례 등에 대해 영상회의를 통해 방역의 최일선인 시,군 및 읍,면,동까지 실시간으로 전파토록 했다.

전북도는 익산시 방역대가 해제되면서 174일간 유지됐던 도내 모든 방역대가 해제돼 재입식이 허용됐으나 농가에서는 발생능가 및 철새도래지 등에 잔존바이러스의 생존이 가능한 만

큼 이달 말까지 농가 소독 및 출입통제 등 방역조치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달 13일 열린 중앙부처 관계장관회의에서는 AI 재발방지를 위해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AI의 주기적 발생방지를 위해 예방 및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발생시 신속,강력한 초동대응으로 조기종식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방역 대응체계 정비와 조직,인력 지원체계 강화로 대응력을 제고하고, 취약지역 재편과 가금류 유통 관리 강화 등으로 바이러스의 농장 유

입 차단 강화와 평시책임 방역 정착을 위해 계열사 책임 강화를 위한 등 록제 도입 및 5년 이내 3회 발생능가 축산업 허가 취소, 살처분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랜더링, 소각 등 사체처리 방식을 다양화해 매몰지 조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한 중앙정부의 방역 개선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의 세부 지침에 따라 전북도 실정에 맞는 개선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AI 재발방지를 통해 도내 가금산업의 육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인재용 기자

## '랜섬웨어 피해' 예방이 최선입니다

### 네트워크 차단하고 컴퓨터 켜 뒤 파일 공유 기능 해제해야

전북도는 지난 12일부터 유럽과 아시아를 비롯한 약 150개국에서 사상 최대의 동시다발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공격 발생에 따른 PC 사용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전북도는 랜섬웨어 공격 인지 후 곧바로 공격에 사용되는 포트를 방화벽에서 차단하고 청내 전체 PC에 대한 보안패치 점검을 실시했으며 보안패치 미설치 PC의 인터넷 접속 차단을 통해 피해예방을 강화했다.

'워너크라이 랜섬웨어'는 감염될 경우 PC내의 중요 문서, 사진 파일 등을 암호화한 뒤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악성코드로 Windows의 '폴더 및 파일 공유' 취약점을 악용해 인터넷에 접속만 하여도 감염되기 때문에 예방을 위해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랜섬웨어 감염을 피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의 인터넷선을 뽑아 네트워크를 차단하고 컴퓨터를 켜 뒤 파일 공유 기능을 해제해야 한다. 이후 컴퓨

터를 재 시작해 인터넷에 연결하고 백신 프로그램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한 뒤 악성코드 감염 여부를 검사한다.

아울러 마이크로소프트(MS)의 Windows 운영체제(OS)별로 최신 보안 패치를 설치해야 한다. Windows 7과 Windows 10 등은 제어판 메뉴에서 Windows 업데이트를 하고, Windows XP와 Windows 8 등 MS가 보안 지원을 중단한 OS는 업데이트 사이트에서 자신의 운영체제에 맞는 업데이트 파일을 수동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요한 문서나 사진들은 USB나 외장하드를 통한 정기적인 자료 백업이 필요하며 백업 후 컴퓨터와 연결을 끊어야 랜섬웨어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감염이 의심되면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 대응센터(국번 없이 118)나 보안 업체에 신고해 조원을 구해야 한다. /인재용 기자

## 도, '식중독 없는 피파 U-20 월드컵' 앞장

### 식품위생합동단속반, 18일~6월 8일까지 특별단속

전북도는 오는 20일 시작되는 '2017 FIFA U-20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전주,군산시,익산시와 합동으로 식품위생합동단속반을 편성해 18일부터 6월 8일까지 15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합동단속반은 도 및 3개시 위생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으로 5개반 20명으로 편성했으며 대회기간 중 월드컵 경기장, 전주한마루, 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 은파유원지, 익산역, 고속버스터미널 주변 식품취급업소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점검으로 위생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주요점검내용은 무신고 또는 식품, 축산물 표시기준 준수 여부, 유통기

한 경과 제품 원료 보관 사용 여부, 냉동,냉장식품의 보존기준 준수 여부, 지하수 식품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 기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여부 등 중점 지도,점검과 의심되는 조리 식품, 농산물, 수산물을 수거해 전북 보건환경연구원에 농약 및 유해물질 함유여부 등 안전성 여부를 검사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대회가 5~6월에 개최되는 만큼 도민 및 식품취급업체들 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으며, 불법행위 발생 시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국번 없이 '1399'로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인재용 기자

## 전북방문의 해, 현장홍보활동 강화한다

### 도내 대학생들로 구성된 전북관광 홍보사절단 발대식

2017 전북방문의 해 홍보강화를 위해 전북도가 전북관광 홍보사절단을 구성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객 유치를 위한 현장홍보활동 강화를 위해 전북관광 홍보사절단 발대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나섰다.

지난 13일 전주 한옥마을 내 소리문회관에서 전북관광 홍보사절단 50명과 도 및 한국청소년전북연맹 관계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홍보사절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서창훈 한국청소년전북연맹 총재의 홍보사절단 증서 수여에 이어 전문 강사를 초빙한 토론회

관광시스템 및 SNS서비스 교육 등의 관광,친절교육이 진행됐으며, 행사 후에는 전주 한옥마을에서 현장 홍보활동을 벌였다.

홍보사절단은 남녀 각 25명으로, 전북대와 원광대, 우석대, 군산대, 원광보건대 등 대학생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오는 10월까지 서울과 수도권, 부산 및 대구 등 영남권, 광주와 대전 등의 호남,충청권을 돌며 역과 터미널 등의 다중집합장소 및 대학축제장 등을 방문해 전북방문의 해와 전북투어패스, 도내 시,군별 지역축제에 대한 홍보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또 세계태권도대회와 전주소리축제 등 도내 축제에도 직접 참가해 SNS를 통한 축제 전파활동도 펼치게 된다.

당장 오는 20일에는 서울 어린이대공원에서 개최되는 '서울도시농업박람회'에 참여하고, 27일에는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에 참가해 전북관광 현장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육흥기 관광총괄과장은 "올해 전북은 국내외 관광객 3,500만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현장홍보를 위해 전북관광 홍보사절단을 구성,운영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홍보사절단원 각자가 우리 전북의 얼굴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의 재능을 바탕으로 전북관광을 전파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인재용 기자

## 전북도, 도내 대학 찾아가 금융특강

전북도가 전북대학교 등 도내 5개 대학을 16일부터 25일까지 찾아가 상대성 500여명을 대상으로 금융특강을 실시한다.

지난 2014년부터 시작된 이번 아카데미는 올해는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이 완료된 후 대학들의 관심이 뜨거워진 만큼 금융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금융유관기관 간부들과 직접 소통하는 방식으로 마련했다.

교육내용은 각 대학별로 새만금개발과 전북금융산업비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의 이해, 금융유관기관의 역할과 기능, 혁신도시 이전기관과 전라북도 상생발전 방안, 알기 쉬운 증권시장 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학습이 되도록 여러 방향의 주제로 진행된다.

강사로는 금융공기업, 금융회사, 중앙부처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금융전문가를 추천받아 위촉했고, 앞으로도 활발한 교류와 지원을 통해 대학생 역량을 키워 나갈 예정이다. /인재용 기자